

# 새만금 사업 시행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 글은 2000. 8. 31 KCID 제16회 이사회에서 결의, 승인되었으며, 임원 및 고문들의 서명 날인을 받아 각 신문사 및 관계기관으로 홍보 배부되었다.

우리 한국관계배수위원회는 관개, 배수, 홍수조절 및 환경보전 분야의 1,300여 학자, 기술자 및 관련 전문업무 종사자들의 모임으로, 세계 9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세계물위원회(WWC), 지구물협력기구(GWP) 등 20여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UN경제사회이사회(ECOSOC), 식량농업기구(FA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세계기상기구(WMO)의 중요한 자문기관인 국제관계배수위원회(ICID)의 한국 대표기관이다. 지난해 9월, 스페인 그라나다에서 열린 ICID 총회에서 Aly M. Shady 회장은 21세기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물, 식량 그리고 환경」임을 역설하였다. 또한, 올해 7월 27일 우리나라 사업현장을 방문한 Bart Schultz 신임 회장은 인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한국의 현실에서 간척사업이야말로 물과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이며 훌륭한 대안이라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FAO의 통계에 의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인구의 15%인 8억명 정도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기상이변은 언제 어느 곡창지대를 강타할 지 알 수 없다.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처절하게 죽어 가는 모습은 식량의 중요성을 망각할 때 뒤따라 올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은 천금보다 귀하고, 국토가 협소한 우리 형편에서 농토 한 평은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천 평보다 더 귀중한 것이다.

1999년 우리의 인구밀도는 약 470명/km<sup>2</sup>로 일본, 네덜란드 등과 비슷하나, 경사 15% 이하의 가용토지 면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홍콩 등과 같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다. 더구나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식량보장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세계 밥을 더 이상 남의 손에 의존할 수는 없다. 새만금사업으로 새롭게 조성되는 우량농지 약 28,000ha는 북한의 식량 부족분 50만 톤과 약 100만 명의 식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면적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홍수방지 기능을 살펴볼 때, 지난 8월 20일부터 전북지방의 큰 호우 때문에 발생하였던 6,000여ha의 김제, 부안지역 침수피해도 새만금방조제가 완공되어 있었다면 미연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이미 시공된 방조제를 허물어야 한다는 일부 단체들의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결여된 매우 위험하며 무책임한 것이다. 새만금지구의 수질은 방조제 공사와는 관계없이 보전되어야 하며, 환경기초시설은 방조제 준공 이전에 건설하고, 선진국의 경우처럼 오염 배출수를 원천적으로 처리하여 담수호에 유입시킨 후 바다로 방류하여야 한다. 진정으로 수질환경을 걱정한다면 우선 담수호로 유입하는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아야 옳을 것이다. 새만금 수질은 간척사업을 포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새만금은 유입하천 유역에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환경농업의 도입, 오염총량제 실시, 금강물 희석수 도입, 호내 자연보전구역이나 침전지 설치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목표수질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그 동안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새만금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민관공동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조사를 끝내 놓고도 사업 시행여부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일부 단체나 개인이 객관적인 논거 없이 소모적인 환경 논쟁을 되풀이하는 것은 이제 끝을 맺어야 한다. 이에 우리 1,300여 회원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앞으로 새만금사업이 나아갈 바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검토하라!

1. 우리 위원회는 간척 사업이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큰 일본, 네덜란드 등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가장 현실적인 국토관리 대책이라고 인식한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30% 이하이고, 도로, 주택 및 산업용지로의 전용 때문에 매년 3만ha의 농지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간척사업으로 우량농지를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위해 중요한 사업으로 정부는 과감히 이 사업의 완공 마무리에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 시행하라!

2. 우리 위원회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단체들이 제기한 갯벌보존과 담수호 수질보전에 관한 대안들을 수용하여 국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연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반영해 환경친화적인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척사업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하여 국고 또는 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투자하여, 방조제 연안에 새로운 갯벌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건전한 생태 보존 공간을 조성하며, 국민들에게 식량 안보와 자연 사랑에 관한 교육의 장소를 조성하는 등 선진 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한다.

## 추진하라!

3. 우리 위원회는 새만금간척지의 농업개발 사업이 식량 안보와 수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방조제 설치에 따른 교통 개선, 관광자원 개발, 항만 기반 조성, 논에서의 수질 정화와 미생물과 어류 및 조류의 생태 서식 환경 조성, 공기의 정화 등 부수적인 환경

개선 효과가 막대한 점을 중시한다. 또한, 간척농지의 가치가 갯벌의 가치보다 훨씬 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가 갯벌의 생태 서식과 수질 환경 정화 효과를 다른 나라의 국지적인 자료나 단순한 경험과 비교한 결과를 인용하여 사업의 진가를 과소평가하는 불공정한 주장을 펴는 일은 본 사업시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이해를 왜곡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조속히 중단토록 촉구한다.

4. 우리 위원회는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를 통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새만금사업에 따른 관개, 배수, 홍수 조절의 효과를 높이고, 토지와 수자원 및 연안의 환경 보전적 기능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2001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ICID 회의에서 간척사업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토지조성과 수자원 개발 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새만금사업이 친환경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문 분야별로 검토한 결과, 새만금사업을 중단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며, 오히려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수천억원의 국고만 낭비할 뿐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따라서, 정부는 새만금방조제 공사를 조속히 완공 할 것을 촉구한다.

5. 우리 위원회는 새만금 사업 시행을 부정하는 일부 단체들이 소모적인 논쟁을 중지하고, 국민들이 진실로 환경을 아끼고 보전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며, 아울러 우리의 후손들이 식량위기에 빠져들지 않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데 힘을 기울이기를 촉구한다.

한국관개배수위원회